

“일자리 창출·체류형 관광지 조성 강진 변화 이끌 터”

와이드인터뷰

이승욱 강진군수

천년의 신비 고려청자의 고장 강진은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남도의 대표 관광지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체취가 고스란히 서려있는 '다산초당'과 대한민국 100대 여행지 가운데 하나인 '가우도', 우리나라 호국정신의 성지 '전라병영성' 등 다양한 역사유적과 함께 맛깔스런 남도음식으로 유명하다.

문화예술을 접목한 관광산업 육성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와 인구유입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승욱 강진군수를 기해낸 새해를 맞아 전남도민일보가 만나봤다.

작년 7월 취임 이후 군민중심의 군정을 몸소 실천해 나가고 있는 이 군수는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강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체류형 관광지 조성'의 중요성을 내걸고 주요 업무보고와 군민들과의 만남 속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는 특히 "강진의 백년대계를 이룰 균형 계획은 군수와 공무원, 군민, 향우들의 노력이 합쳐져야 가능하다"며 모두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 올해 군정목표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강조했다. 어떤 방향인가.

= 올해 핵심 현안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2019 올해의 관광도시'를 맞아 체류형 관광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에 강진산단 내 기업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강진산단 분양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

기업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확립을 위해 강진산단 분양계약에 따른 유치 기업에 대해 자금 조달계획, 대금 납부, 설계 등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서 조기 착공과 입주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가동에 필요한 인력은 군민 위주로 고용하도록 협의하고 부득이 관외에서 충원되어야 할 전문 인력은 지역 내 거주가 가능하도록 주거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공장가동 후에는 판매망 확보 등 체계적으로 행정·재정적인 '종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그간 체류형 관광객 유치가 걸림돌이 되었던 숙박시설 문제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관내 민간기업에서 56실 규모의 관광호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고, 지난해 11월 개장식을 가진 프리미엄급 대중제 골프장인 다산배아체류골프&리조트 또한 52실 규모의 콘도형 리조트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마쳤다.

강진을 보은산과 세계모란공원, 영랑생가와 연계하여 금서당과 사의재를 잇는 강진의 '몽마르트 언덕'도 본격 조성 중이다. 가장 '강진의 몽마르트 언덕'은 보은산 공원화사업, 사의재 재깎기, 강진 한옥미술관 모두와 두루 연계되어 체험거리와 스토리가 풍부한 강진읍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자리



잡을 것이다.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강진산단 분양 100% 달성으로 기업 유치를 통해 고용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일자리창출과'를 신설, 민간인은 포상금 지급,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기업유치 불확신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도 이미 완료했다.

군민, 금융인, 기업인 등 각계각층 41명이 참여하는 '민간투자자위원회'를 가동해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공고히 하고, 매월 실·과·소장, 읍·면장과 함께 기업유치추진상황보고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진화책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기업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다.

우리 강진 군민의 70%가 농·어업에 종사한다. 이

에 농·어업 자생력 강화에도 총력 대응하고 있다.

농·어민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행정기관은 농·수·축협과 협력해 산지 가공과 유통업체를 집중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직거래, 관광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창업형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득향상을 이룰 농업의 부가가치를 상승시켜 인구유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은 당연히 강진산단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올해 100%분양을 주민들에게 약속했는데 가능한지.

= 민선 7기 출범이전 16.4%에 머물러 있던 분양률은 취임 6개월여 만에 60%대로 급등했고, 오는 21일에는 진성씨앤씨(주) 등 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추가로 체결해 76%로 상승할 전망이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이처럼 단기간에 이뤄낸 큰 성과에 대해 '담진강의 기적'이라 칭하며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제가 후보시절 내걸었던 '강진산단 100% 분양' 공약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우리 석인 염려는 이제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애초 공약에는 '임기 내 100% 분양하겠다'고 군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의 속도와 성과로는 올해 안으로 강진산단 분양 100% 분양 조기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강조했는데 강진군의 관광정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지금까지의 강진군은 '스쳐 지나는 관광지'로 인식되어 왔다. 강진을 잠깐 들렀다가는 당일치기 방문객이 대다수로 지역경제 연관효과가 현저히 낮다는 큰 단점을 갖고 있었다. 관광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광의 체질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민선 7기 강진 관광의 청사진을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머무르는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놀거리와 먹거리를 비롯한 체험과 숙박시설까지 종합적인 관광 자원 확충을 통해 체류형 관광의 기반을 완성해야 한다.

강진읍에 들어설 관광호텔과 다산배아체류골프장에 신축되고 있는 콘도형 리조트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권역별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의 면모를 갖추고, 강진만 생태공원 등 기존 관광자원의 시설 보완도 꼼꼼히 청

을 진행해 보다 생생한 군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읍·면별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도로정비와 광역상수도 조기공급, 가뭄극복을 위한 관정 개발 등 150여건의 현안 건의와 제안이 있었다.

건의사항은 담당부서별 현지 확인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발전적 제안에 대해서는 군민과 읍·면장들의 협의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군수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과 장소, 형식의 구애 없이 누구든지 찾아가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다. 작년 7월 취임 이후 6개월 동안에 32개 단체 970여명의 군민을 만났다.

올해도 벌써 사회복지 유관시설·기관·단체 9개 분야 125곳의 직능단체별 대화가 계획돼 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군정시책이 되는 열린 행정'의 목표 실현을 위해 군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해 강진의 발전방향을 설정해 나갈 방침이다.

▲ 강진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상회하며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여기에 맞는 복지정책 방향은.

=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노인복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르신 스스로 주체가 되는 경제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와 활력을 높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다.

이에 맞춰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작년 대비 9억3천만원을 증액해 43억여

여민동락 포용·화합 리더십으로 군민통합 앞장 적극적인 기업유치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삶의 질 향상 집중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주력

기겠다.

가우도는 기존의 쥘트랙과 제트 보트, 카타마란 요트 등 해양레저 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자 타워까지 모노레일을 신설하는 등 특화 개발하겠다. 또 1천131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강진만 생태공원을 생태테라리스트로 확대하고, 인근에 지방정원을 조성해 나가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 체험거리를 확충해 머무르는 관광지로서의 역량을 키워 체류형 관광객이 늘어나도록 하겠다.

▲ 항상 군민들과 소통을 강조한다. 올해는 군민들과 어떻게 만나고 군민들의 의견을 실천할지 얘기해달라.

= 강진군의 슬로건 '더불어 행복한 강진, 군민이 주인입니다'처럼 군정의 큰 그림을 실현하는 모든 바탕은 군민이다. 귀를 열고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많은 군민들과 문자와 SNS로 실시간 소통하고 있다. 또한 '문턱 없는 군수실'을 표방해 군민들에게 상시 개방하고 있다.

올해도 읍·면 순회를 통한 군민과의 대화로 민선 7기 군정활동의 첫 시작을 알렸다.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던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2019년 군정 핵심 현안사업을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아울러 현장에서 청취했던 주민 의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는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서 질의·응답

원을 투입, 1천200여명이던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을 1천500여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마을경로당을 복합문화공간이자 기초 복지시설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레크리에이션, 미술, 노래 등 취미·여가 프로그램부터 체조를 비롯한 그라운드 골프와 게이트 볼, 요가 등 운동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해 노인인구의 자립과 건강한 노후를 돕는 등 생산적 복지 실현을 도모하겠다.

또 군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농어촌버스 요금을 1천원 단일요금으로 내려 이미 지난달 1일부터 '천원버스'를 시행하고 있다.

CCTV 확대 설치로 방범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등 강진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강진 실현에 주력하겠다.

▲끝으로 군민들과 향우들에 전하고 싶은 말은.

= 지난 8개월여의 시간동안 각계각층 군민 의견을 수렴해 민선 7기 추진방향을 정확히 정했다. 이제부터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들어가 군민소득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군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군민들께서도 민선 7기 군정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야 추진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군정 전체를 보는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적 협조와 응원을 당부 드린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강진·전우재 기자 wjzun@

